

#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도 평가기포트

2009. 3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9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10
VI. 종합의견 .....	11

# 우크라이나

## I. 일반개황

면적	604천 km <sup>2</sup>	G D P	1,851억 달러(2008)
인구	46.0백만 명(2008)	1 인 당 GDP	4,025달러(2008)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Hryvnya
대외정책	친서방 정책	환율(달러당)	5.27

- 우크라이나는 1991년 구소련에서 독립한 동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 국가로서, 석탄, 광물 등 풍부한 부존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인(78%), 러시아인(17%)을 비롯해 벨로루시인, 루마니아인 등 다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부 공업지역(러시아인)과 서부 농업지역간(우크라이나인)의 민족·문화적 차이가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4년 시민혁명(일명 오렌지혁명) 이후 점진적인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후 유셴코(V. Yushchenko) 대통령, 티모셴코(Y. Tymoshenko) 총리, 야누코비치(V. Yanukovich) 전 총리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대외적으로는 2007년 말 친서방 성향의 연립정부 출범과 2008. 5월 WTO 가입을 바탕으로 서방과의 관계강화가 가속화되는 반면, 러시아와는 가스 가격 협상 문제, 정부의 NATO 및 EU가입 추진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제성장률	12.1	3.0	7.4	7.7	2.1
재정수지 / GDP	-3.2	-1.8	-0.7	-1.1	-1.5
소비자물가상승률	9.0	13.5	9.1	12.8	25.2

자료: IFS 및 EIU

#### □ 2008년 하반기 이후 성장 급속 둔화

- 2007년까지는 주요 수출품인 철강제품의 국제가격 상승, 외국투자자본의 지속 유입, 내수 확대 등을 바탕으로 고성장이 지속되어 GDP 규모가 3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상반기중의 경기 호황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이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철강수출 감소와 외국투자자본 이탈, 자국통화(Hryvnya)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소비 및 투자 감소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어 2.1%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9년에도 세계경기 침체와 철강 수출가격의 약세 지속, 소득감소에 따른 내수 감소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욱 크게 위축<sup>1)</sup>될 전망이다.

#### □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었으나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전망

- 2008년 상반기까지는 국제 원자재 및 식료품 가격의 지속 상승,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등으로 5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1.1%에 이르는 등 물가가 급등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에는 국제 원자재가 및 식료품 가격의 약세 전환과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 감소로 물가상승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음.

1)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 EIU -10%, IMF -5%~-10%

- 2009년에는 소비감소 등 내수가 크게 위축됨에도 불구하고 Hryvnya화 약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국내 가스가격 상승<sup>2)</sup> 등으로 인해 18.5%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재정수지는 IMF의 균형수지 달성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자 지속 전망

- 최근 수년간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 적자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12월 출범한 신 연립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인해 2008년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GDP의 1.5%로 전년보다 소폭 확대되었음.
- 2009년 재정수지는 IMF의 균형수지 요구<sup>3)</sup>에도 불구하고 2009년 들어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 2010년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적자규모가 GDP의 3%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 저부가가치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약한 소비재 산업기반

- 우크라이나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철강제품이 총수출의 42.9% 차지)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함.
- 정부의 관심 부족과 투자 부진으로 인해 가전제품 등 소비재 생산기반, 교통 인프라 및 시설기반 등이 미약한 편이며, 구소련 시절에 각광받았던 항공·우주분야 등의 국제경쟁력도 점차 약화되는 추세임.
- 그러나, 2008년 상반기까지 지속된 경기호황에 힘입어 내수 및 러시아에 대한 수출이 증가한 식품가공업 및 기계·설비 산업은 급속히 성장해 왔음.

2) IMF는 2008. 10월 긴급구제금융 지원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국내 가스가격을 시장가격으로 인상하도록 요구

3) IMF는 긴급구제금융 지원조건의 하나로 2009년 재정수지의 균형을 이루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2010년초 대선을 앞두고 유력한 대선 주자인 티모셴코 총리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재정 지출 축소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 러시아에 대한 높은 에너지 의존도

- 철강,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석유 수요의 80%, 가스 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에 대한 석유·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아 양국 관계의 경색에 따라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sup>4)</sup>해질 수 있는 취약점이 있음.

## □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와 내수시장 확대 등 안정적 성장기반 보유

- 우크라이나는 CIS 국가 중 영토 3위의 국가로 철광석(세계 제5위 생산국), 마그네슘(매장량 세계 2위), 석탄(매장량 340억톤, 약 200개 광산 보유)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비옥한 농토를 보유하고 있음.
- 또한, CIS국가중 인구 2위 국가로 인구가 46백만명에 달해 내수시장<sup>5)</sup>의 성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 대서방 에너지 수송로 역할과 친서방 정책을 통한 시장확대 가능성

-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이자 에너지·물류의 주요 통로로서 매년 상당한 규모의 에너지 통과세(transit fee)를 확보하고 있음.
- 친서방의 대외정책과 WTO 공식 가입(2008.5월)으로 EU 및 세계경제에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해외시장도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 중앙은행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Hryvnya화 가치 지속 하락

- 2008. 8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달러 페그제를 폐지하고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는 등 중앙은행이 적극 개입함에도 불구하고 2009. 2월말 까지 Hryvnya화 가치가 45%나 하락하는 등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4) 러시아가 2006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할인가격 혜택을 폐지하고 수출가격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2006년초 및 2009년초 양국간 가스분쟁 발생

5) 2005~2007년 기간중 소매부문(retail sector)이 임금상승, 소비심리 호조 등으로 연평균 25% 이상 성장하였으며, 2006년 기준 소매부문 시장규모는 약 47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

### □ 정부의 민영화 추진으로 FDI 유입 증가

- 구소련 독립 이후 외국인투자가 매우 부진하였으나 2005년 주요 제철소인 Kryvorizhstal의 네덜란드 Mittal社 앞 매각, 은행부문에 대한 개방 확대 등으로 외국인투자<sup>6)</sup>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
-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경제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 엘리트 계층의 개혁의지 부족 등으로 야누코비치 전 총리는 민영화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반면, 2007년말 구성된 티모셴코 총리 주도의 연립정부는 2008. 1월 UkrTelekom, Turboatom, Odessa Portside Plant 등 민영화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일관성이 부족함.

### □ IMF 지원조건 미이행으로 구제금융 2차분 집행 지연중

- 연립정부내 정파간 갈등 등으로 인해 IMF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2009.2.15자 예정이었던 구제금융 2차분(18억 달러) 집행이 지연중에 있음.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sup>e</sup>
경 상 수 지	6,909	2,531	-1,617	-5,272	-11,900
경 상 수 지 / GDP	10.7	2.9	-1.5	-3.7	-6.4
상 품 수 지	3,741	-1,135	-5,194	-10,572	-15,900
수 출	33,432	35,024	38,949	49,840	67,700
수 입	29,691	36,159	44,143	60,412	83,600
외 환 보 유 액	9,490	18,987	21,843	31,783	30,792
총 외 채 잔 액	30,186	33,297	49,887	74,880	89,775
총외채잔액 / GDP	46.5	38.6	46.3	53.0	48.5
D. S. R.	11.0	13.1	18.2	24.1	26.3

자료: IFS, EIU

6) 2004-2008년 기간중 FDI 유입액(UNCTAD 자료) : 347억 달러

## □ 경상수지 적자기조는 지속 유지되나 적자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

- 2006년 이후 내수확대에 따른 수입증가,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sup>7)</sup> 등으로 상품수지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도 지속 확대되어 왔음.
- 2008년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32.43% 증가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이 37.97%로 수출증가율을 상회하였고, 4/4분기 이후 철강제품의 수출이 급감<sup>8)</sup>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폭도 GDP의 6.4% 수준인 119억 달러로 더욱 확대되었음.
- 그러나, 2009년에는 Hryvnya화 약세 지속과 내수침체로 인해 상품수입이 크게 감소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1.8% 수준인 21억 달러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 수입 증가와 외환보유액 감소로 외환보유액/월평균수입(개월) 하락

- 2007년까지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따른 외국인투자(FDI) 증가, 해외근로자 송금 유입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해외투자자본이 이탈하고 철강수출가격도 하락함으로써 외환보유고는 2007년 318억 달러에서 308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음.
- 2008년중 외환보유액은 감소되는데 반해 상반기중의 경기호조와 에너지가격 급등 등으로 상품수입은 오히려 증가됨으로써 월평균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개월)이 전년도 5개월에서 2008년에는 3.5개월 크게 낮아졌음.

## □ 민간부문의 해외차입 확대로 외채규모 크게 증가

- 경기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및 기업들의 해외차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외채규모가 2005년말 333억 달러에서 2008년말 898억 달러로 3년만에 약 170% 증가되었음.
- 빠른 외채증가로 인해 GDP대비 외채잔액 및 총수출대비 외채잔액이 2005년 각각 38.62%, 73.77%에서 2008년 48.49%, 100.2%로 크게 높아지게 되었음.

7) 러시아산 가스수입가격(1,000㎥ 당) 추이 : US\$50 (2005년) → US\$95 (2006년) → US\$130 (2007년) → US\$179.5(2008년) → US\$230-250 (2009년 예상, 유럽시장가격의 20% 할인 가격)

8) 철강수출가격 : US\$1,073/톤 (2008.6월) → US\$400/톤 (2009.3월)

### Ⅲ. 정치·사회 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 연립정부의 내부갈등 심화

- 2007. 9월 실시된 조기총선에서 야누코비치 前총리가 이끄는 친러 지역당이 제1당을 차지하였으나, 2007. 12월 우리우크라이나당(여당)과 티모셴코 블록이 연립내각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오렌지혁명 동지인 유셴코 대통령, 티모셴코 총리의 연립정부가 출범하였음.
- 그러나, 연립정부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연정내 갈등이 2008. 8월 러시아의 그루지야 침공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한 대통령과 총리간의 의견 차로 인해 크게 증폭되었으며, 2008. 9월 티모셴코 블록이 야당인 지역당과 연합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률을 통과시킴으로써 연정이 붕괴되었음.
- 연정 붕괴 이후 유셴코 대통령이 의회해산과 조기총선을 명령하자 티모셴코 총리는 조기총선을 위한 예산집행을 거부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심화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IMF앞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티모셴코 총리가 연정에 복귀, 정치적 혼란사태는 일단락되었음.

##### □ 2010년 초 대선을 앞두고 정국불안 지속 예상

- 현재까지 연립정부가 유지되고는 있으나, 금년초 러시아와의 가스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두고 정과간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었고 최근에는 IMF 프로그램 이행<sup>9)</sup> 등 경제위기 대처방안과 관련해서도 정치권내 분열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2010년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유셴코 대통령, 티모셴코 총리 및 야누코비치 前총리간 정치적 공방으로 금년 내내 정국불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9) IMF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제금융 2차 집행분(18억 달러) 지원 조건으로 2009년도 정부예산의 적자규모 축소와 정치권의 IMF 프로그램 준수 확약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셴코 대통령은 지난 2월말 IMF앞 협조 확약 서한을 송부함.



## □ EU 및 NATO 가입 추진 등 친서방 대외정책 추진

- 오렌지혁명 이후 친서방 경향의 대외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8. 5월에는 WTO에 공식 가입되었는 바, 향후 국제사회로의 편입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2007년말 EU와의 동반자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PCA)이 완료됨에 따라 EU와의 새로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NATO 가입 준비단계인 MAP(Membership Action Plan) 참여를 추진해 오고 있으나,

국내정치 불안정, 야당인 지역당의 반대, 우크라이나의 NATO가입에 대한 NATO 회원국내 이해관계 차이, 최근의 경제위기 발생 등으로 인해 MAP 참여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 러시아와의 갈등 지속

- 유셴코 대통령 당선 이후 친서방의 대외정책 추진으로 러시아와는 소원한 관계가 지속되어 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EU 및 NATO 가입 추진과 가스 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됨으로써 대러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동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 그러나, 2010년초 대통령선거에서 친러시아 경향의 야누코비치 前총리 또는 최근 러시아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티모셴코 총리가 당선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언어, 종교 등으로 얽혀 동서 지역간 갈등<sup>10)</sup> 지속

- 언어, 종교,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동서 지역간의 대립과 갈등이 총선 및 대선때마다 매번 표출되고 있고 국민 통합 및 정치·경제적 화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10)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철강, 화학 등 공업지대인 동부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의 야누코비치 前총리를,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는 수도 키예프 중심의 서부지역은 친서방 성향의 유셴코 대통령과 티모셴코 총리를 지지

## □ 경제위기 발생 이후 잦은 소규모, 국지적 시위 발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다수의 시위가 발생하고는 있으나, 동 시위는 소규모이고 국지적이어서 큰 사회 불안요소가 되지는 않고 있음.

## □ 대규모 군중 시위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음

- 2004년 오렌지 혁명이후로는 대규모의 격렬한 군중시위가 발생한 적이 없으며, 최근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위기로 사회불안이 점증하고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할 징후는 보이지 않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 주요 신용평가기관 신용등급

- S&P는 2008. 6월 이후 물가상승 및 상품수지 적자 확대 지속, IMF 구제금융 신청, 구제금융 2차분 집행 지연 및 정치적 불안정 지속 등을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3회에 걸쳐 4단계(BB- → CCC+) 하향 조정하였음.
- Fitch는 2008. 10월 IMF 구제금융 신청후 BB-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금년 2월에는 IMF 구제금융 2차분 집행 지연과 정치적 불안정 지속을 이유로 다시 우크라이나의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하였음.
- OECD는 금년 1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가등급을 기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음.
- Moody's : B2('03. 7) → B1('03. 11)
- S&P : BB-('05. 5) → B+('08. 6) → B('08. 10) → CCC+('09. 2)
- Fitch : BB-('05. 1) → BB-('08. 9) → B+('08. 10) → B('09. 2)
- OECD : 5등급('07. 1) → 5등급('08. 1) → 6등급('09. 1)

## 2. 외채상환능력

### □ 단기외채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로 외채상환부담 크게 증가

- 총수출의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져 D.S.R.이 2005년 13.05%에서 2008년 26.27%로 크게 높아졌음.
- 2008년중 단기외채는 전년보다 60억 달러 증가되는데 반해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10억 달러 감소됨으로써 2008년말 기준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이 86.3%로 전년(64.8%)에 비해 크게 높아진 바, 단기적으로 외채상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음.

### □ IMF 프로그램 미이행으로 IMF 구제금융 집행 지연<sup>11)</sup>

- IMF는 2008. 10월 긴급구제금융 지원조건으로 2009년 재정수지의 균형을 요구하였으나, 우크라이나는 정부는 2008. 12월말 GDP대비 -3.0%의 재정 적자를 기초로 한 2009년 예산안을 확정함으로써 IMF 구제금융 2차분 집행이 지연되고 있음.

\* CDS프리미엄 : 399bp('08.7월말)→717bp('08.9월말)→2,441bp('08.10월말)→3,667bp('09.3.20)

##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 2008년 교역량 총 26억 달러로 전년대비 41.1% 증가

- 2008년 우리나라의 대 우크라이나 수출액은 17.7억 달러로 전년대비 14.7%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출품목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60%), 전자제품(10%), 합성수지(7.0%) 등임.
- 2008년 수입액은 8.2억 달러로 전년대비 179.8% 증가하였으며, 주요 품목은 철강제품(66%), 농산물(16%) 등임.

11) 2009. 2월말 우크라이나 정부는 IMF와 지원프로그램 이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서한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IMF와 지원조건 변경에 대해 협의중에 있음.

□ 경제위기 영향으로 대 우크라이나 수출 급속 둔화

- 2009년 1-2월 기간중 수출이 전년동기 대비 90% 감소된 26백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 등 2009년에는 동국의 경제위기로 인해 대 우크라이나 수출이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VI. 종합의견

- 우크라이나 경제는 2008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내수 및 수출 급감으로 성장이 급속히 둔화되고 있으며 2009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에 이르는 등 경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주요 수출품인 철강가격의 약세 등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외환보유고도 감소되고 있어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재원을 해외차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IMF 지원조건의 미이행으로 구제금융 2차분 집행이 지연되는 등 경제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2010년 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통령과 총리간의 갈등 등 각 정파간 갈등이 지속되고, 대외관계에 있어서도 가스분쟁 발생 등으로 인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의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선임조사역 안상훈(☎02-3779-6650)  
E-mail : [ash1199@koreaexim.go.kr](mailto:ash1199@koreaexim.go.kr)